

대학도서관 정책의 반성과 과제*

Review and Plan of the Policy for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전 명 숙(Chun, Myung Sook)**

〈목 차〉

I. 서론	1. 장서
II. 대학도서관 정보정책의 전개	2. 건물
1. 한국 대학도서관 현황	3. 사서
2. 정보정책의 역사	4. 이용자
III. 연구결과	IV. 결론과 제안

초 록

대학도서관의 정책은 도서관의 장서, 사서, 건물, 이용자를 관리하는 방향을 결정한다. 대학도서관의 장서는 종이자료와 디지털자료를 구비하여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건물의 관리는 기계를 이용하여 자동화시켜야 하며, 이용자는 수서, 검색, 대출 모든 부분에서 되도록 손수봉사(Self-service)를 하게 한다. 사서들은 자질을 높여서 수시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전문직의 규범이나 원칙을 만들고, 대학도서관의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과 절차, 규칙을 성문화하여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대학도서관에 지원금을 배분하되, 그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주제어: 국가정책, 대학도서관 정책, 장서, 건물, 전문사서, 이용자, Self-service

Abstract

University librarians prepare standards, guidelines, code, principles, policy for the library management.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limited to support of the library budget.

I. 서 론

1. 연구목적

최근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도서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많은 연구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도서관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므로 도서관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도서관의 환경은 교육제도의 변화와 디지털장서의 출현으

* 본 연구는 2001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접수일 : 2002. 9. 9

로 새로운 운영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즉 과거의 대학도서관이 중심을 두고 관리하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법 그리고 규정이 갑자기 현실에 맞지 않게 됨으로써 대학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미래의 대학도서관 운영 방법을 예측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정책의 의미를 살펴보고, 과거 대학도서관 정책은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이론적으로 연구하며, 역사적으로 그 정책효과를 측정하여 미래의 대학도서관 정책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수립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방법과 제한점

본 연구는 주로 사립대학교 도서관을 대상으로 정보정책이 대학도서관의 장서, 사서, 건물,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루게 된다.

- (1) 과거 대학도서관의 정보정책은 어떻게 실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가?
- (2) 현재 정보정책은 대학도서관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3) 위의 연구결과 미래에는 어떠한 정보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대학도서관의 현황과 과거의 통계자료는 『한국도서관통계 2001』에서 수집하였다. 또한 2002년 4월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대학도서관의 관장과 전문사서들을 면담하였다. 또한 20명의 사서를 도서관경영에 관하여 테스트하였다. 그리고 도서관 건물에 관하여는 2002년 8월에 영국의 대학도서관 5곳을 방문하여 관찰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1) 연구의 주제가 너무 광범위한 경향이 있다. 연구의 대상으로 대학도서관의 구성요소인 장서, 사서, 건물, 이용자 모두를 다루기 때문이다.
- (2) 도서관의 정보정책을 독립변수로 정하여 도서관에 나타나는 현상을 인과관계로써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것은 도서관현상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다른 가외변인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3. 대학도서관 정보정책의 정의와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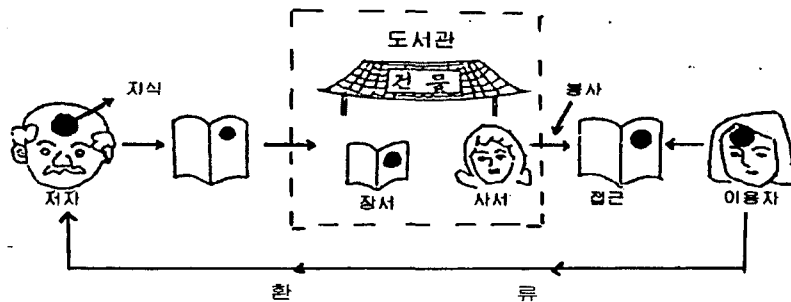
정보정책은 도서관 정책에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컴퓨터의 발달로 종이자료와 디지털 자료가 병행하여 이용되고 도서관간에 정보가 흐르게 되면서 도서관정책이 정보정책이라는 개념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정책에 관하여는 많은 정의가 있으며,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봉순은 '정책은 정치적 용어로 국가의 국

리민복(國利民福)을 증진시키려는 시책을 뜻한다. 도서관정책은 도서관 봉사활동에 관하여 국가의 공권성을 배경으로 강행되는 기본 방침 내지 지침으로 도서관제도와 운영에는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도서관 행정에 있어서는 그 준거가 되고 원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김두홍은 도서관 정책이라 함은 '일국의 도서관의 장래에 관한 국가차원의 계획을 뜻한다. 도서관정책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지적, 문화적 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도서관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문화된 도서관 관계법규에 따라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또한 실시과정을 획책한 기본방침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정보정책은 미래지향적이며 국가와 관련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는 국가가 도서관의 운영에 방향을 결정하고 지침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예산을 할애하여 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학도서관 정보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은 장서, 사서, 건물, 이용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서관의 최종목표는 정보전달(Communication)이다. 그러므로 대학 도서관 정보정책은 저자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한다는 기본 목적 하에서 앞으로 도서관의

- (1) 장서는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
- (2) 도서관 건물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3) 사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4) 이용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그림 1〉 도서관의 정보전달과 구성요소

정책의 상위개념은 법으로,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상세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바꾼 것이 정책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현행 법령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같은 위계로 구성된다.

도서관과 관계되는 법에는 도서관법, 도서관진흥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도서관법시

행령과 도서관법시행규칙이 있다. 부칙은 당해 법령의 본체적 규정사항에 부수되거나 경과적인 성격의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을 말한다.

대학도서관과 관계되는 법에는 도서관법 이외에도 교육법, 건축법이 있으며 대학설치 기준령,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저작권법령,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령 등과 기타 많은 법규가 있다. 도서관내에서는 도서관규정, 수서정책, 대출정책 등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인적자원정보국 제2조 정과에서는 '대학 및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대한 운영지원'을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의 모체기관이다. 국가정책은 중앙집권제도 하에서는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운영에 직접 관련하면서 도서관내의 업무에도 행동 지침이 된다. 즉 국가가 도서관봉사의 예산을 배정하면서 대출권수나 대출 장소까지 지정하여 놓는 등 도서관의 모든 정책이나 규칙은 물론 전문직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도서관을 운영할 것을 법령(Public Library Act)으로 정하여 놓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에는 스페인, 체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등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학도서관 특히 사립대학 도서관에는 국가가 모체조직이 아니므로 도서관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대학도서관의 모체기관은 대학이므로 국가는 대학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고등교육정책과 대학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에는 국가의 교육 정책이 각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대학을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은 대학도서관의 환경을 조성하므로써 대학도서관 운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의 정책보다는 전문단체의 전문성에 의하여 도서관을 관리하게 되며 그 좋은 예가 미국이다. 미국의 언어표현에는 대학도서관의 국가정책이란 찾아볼 수 없고 정보정책(Information policy)이나 도서관정책(Library policy)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서들의 행동 방향을 정해주는 기준(Standards)과 지침(Guidelines), Code, Manifesto, Position papers, 원칙(Principles) 등이 많이 있다. 이외에도 대학도서관은 도서관의 장서기준, 내부에서 결정한 진술(Statement), 사명(Mission statement), 정책(Policy), 절차(procedure), 규정(Rules), 규정(Regulation)등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다. 도서관의 정보정책으로써의 기준은 장서수, 사서수, 좌석수와 같이 최소의 수량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국에는 이미 대학도서관마다 적당량의 책이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대학도서관에서는 전문사서들이 각 대학의 목적에 따라서 도서관의 목적을 세우고 정보정책을 세워서 도서관을 운영한다. 도서관의 정보정책은 사서와 직원들의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경계를 설정하여 한계를 지어주는 지침으로 관습적으로 구두로 전해지는 것과 성문화된 것이 있다. 도서관의 운영이 전문화되면 도서관봉사 전반에 걸쳐 수서 정책, 대출 정책 등을 성문화하게 된다. 도서관 정보정책은 도서관을 관리하는 모든 직원과 도서관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되며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정기적인 검토를

거쳐서 현 상황에 맞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정책은 규칙과 절차를 파생시키므로 써 사서나 도서관 이용자 개인들이 모두 정책에 따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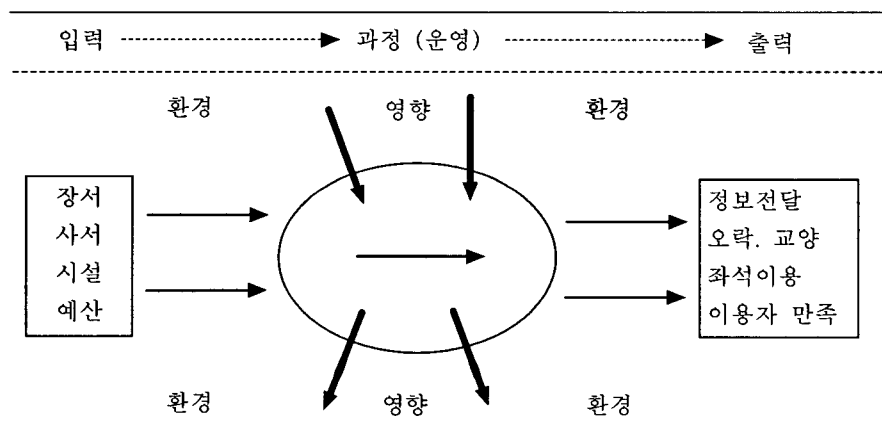
4. 선행연구의 방법과 요약

도서관 정보정책은 도서관운영의 한 부분으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되고 시행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도서관 정보정책과 관계되는 도서관운영의 이론을 전개하거나 도서관 정보정책 자체를 설명하거나 비판하고 서술하는 여러 가지 연구논문이 많이 나와 있다. 그리고 정보정책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도서관의 운영을 관찰하거나 현재의 도서관 정책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립되었는지를 서술하는 역사적 방법,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도서관정보정책을 비교하는 비교도서관학 방법, 이해하기 쉽게 도서관을 숫자로 표현하는 통계적 방법 등이 있다. 대부분 이러한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종합적인 방법으로 연구된 것이 많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희수는 대학도서관의 진흥정책으로 대학도서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KERIS의 교육학술정보망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별 활용도가 높은 핵심 웹DB를 국가에서 일괄구매 하거나 대학이 협력하여 공동구매 하도록 하며, 국내자료의 표준화를 유도한다. 분담수서나 상호대차를 활성화시키며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한다는 것이다.

백항기는 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하고 도서관간에 자료에 관한 중복투자를 중지할 것을 제안하며, 도서관행정을 전문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학 사서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며 저작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도서관 정보정책은 도서관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명숙은 도서관운영을 도서관



〈그림 2〉 시스템으로서의 도서관

과 환경이 밀접하게 상호작용 하는 시스템으로 설명하였다. "시스템은 전체의 공동목적을 위하여 상호작용 하면서 기능하는 여러 개의 활동 부서들로 이루어진 한 조직체이다. 도서관시스템은 경계에 의하여 환경과 나뉘게 되며 환경이 경계를 넘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입력, 입력을 적당히 조화시켜서 입력의 효과를 최대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운영이며, 시스템의 구성요소가 경계를 넘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출력이다. 경계는 시스템과 환경이 같은 점을 공유하는 곳이기도 하다. 출력은 다시 입력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된다. 시스템을 도서관봉사의 시각으로 이해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또한 전명숙은 문화변용이론을 응용하여 도서관의 장서를 물질문화가 변화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도서관에서 장서가 디지털장서로 변화되나 이용자들이 완전히 디지털자료만 이용하는 시점이 될 때까지 이 두자료는 한동안 병행하여 이용된다.

II. 도서관 정보정책의 전개

1. 한국 대학도서관 현황

대학도서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도서관통계, 2001, 18).

〈표 1〉 대학도서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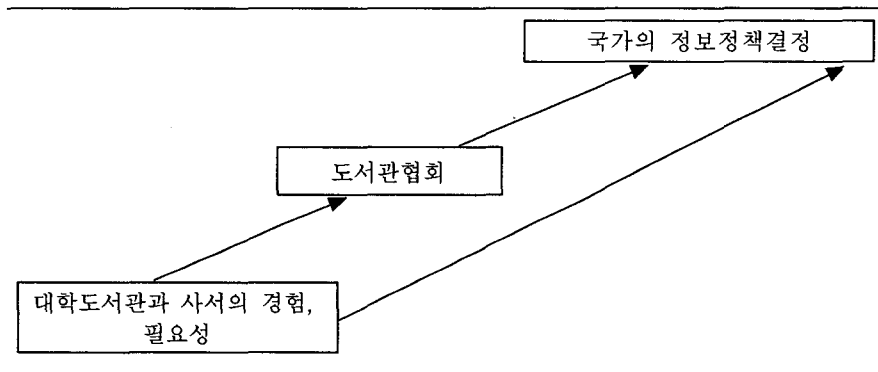
도서관	종류	수	백분율(%)	
관수	국공립	63	15.0	
	사립	179	42.6	
	전문	160	38.0	
	각종	18	18.0	
	총합계	420	100	
정사서자격증	1급	국공립	129	35.7
		사립	210	58.2
		전문	21	5.8
		각종	1	0.3
		총합계	361	100
	2급	국공립	464	24.2
		사립	1,208	62.9
		전문	238	12.4
		각종	10	0.5
		총합계	1,920	100

대학도서관은 420관으로 우리나라 전체도서관 9,337관의 4%에 불과하다. 이중 사립대학도서관이 179관 (42.6%)으로 가장 많고 이러한 사립대학 도서관에는 1급정사서 210명(58.2%)과 2급 정사서 1,280명(62.9%)이 있다.

2. 정보정책의 역사

정보정책은 시대와 사회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 역사적으로 정보정책을 살펴보면 조선시대까지는 왕의 명령이 정보정책의 역할을 하였다. 일제시대에는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에 한국에 관한 자료를 모아서 도서관을 세우고 이용하는 정보정책을 세웠다. 해방이후 1963년까지는 성문화된 정보정책이 거의 없다시피 하였으나 1963년 도서관인의 노력으로 도서관법이 제정되었다. 이 당시에는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회적 요청도 없었고 법률 입안자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도서관의 전문인들이 도서관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하에서는 도서관 정보정책의 개정이 없었고 과학과 경제적인 발전을 위하여 KAIST와 KORSTIC을 중심으로 많은 과학기술 전문도서관이 설립되었다. 1980년 이후에는 대학경영의 자율권이 대학에 주어지면서 대학도서관이 많이 발전하였으며 1990년도 이후에는 공공도서관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도서관 정보정책의 설립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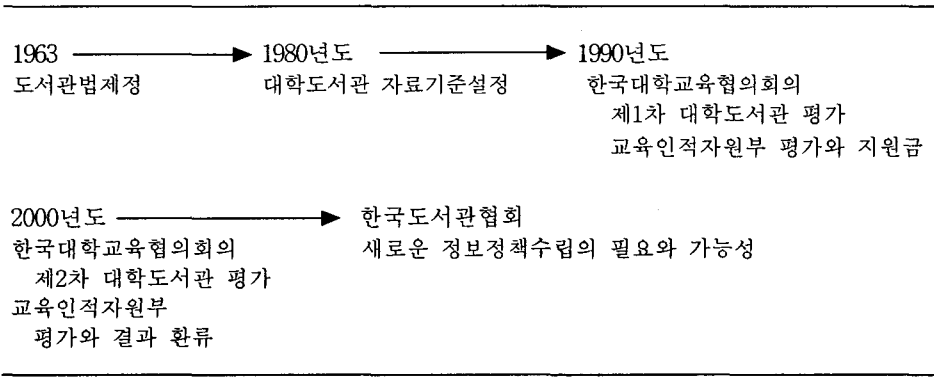


〈그림 3〉 도서관 정보정책 설립과정

과거에는 도서관협회가 주가 되어 정보정책을 설립하도록 노력하였으나 현재에는 사서들이 대학도서관 운영의 변화와 필요에 의하여 도서관협회에 제안하거나, 개인적으로 좋은 정책을 건의하고, 압력단체를 형성하면서 국가의 정보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설립된 정보정책은 실행으로 옮겨지면서 평가를 받게 되며 이 결과는 다시 정보정책 설립에 반영된다. 역사적으로 한국사회 전체 시각에서 도서관 정보정책 실행과정

과 평가는 다음 그림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대학도서관의 정보정책실행과정과 평가

1960년대에는 도서관법을 제정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대학도서관기준을 설정하여 장서수를 증가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1990년대에는 장서의 이용을 평가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을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는 1990년대의 평가결과를 재심사하여 이용은 물론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과 디지털 자료의 평가도 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평가하였으며, 전자메일을 열어 놓음으로써 사서들이 직접 교육인적자원부에 좋은 건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80년대의 한국대학 도서관은 대학설치기준령에 따라서 운영되었으므로 그 정보정책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대별로 대학도서관의 직원수, 좌석수, 장서수, 예산을 알아보았다<표 2>. 대학들은 대학설치기준령(12조 3,4항)을 따라서 학생정원 1인당 30권, 학과당 500권중 많은 수의 도서를 소장하고 연간증가장서수는 학생1인당 3권 이상을 추가하여 운영하였으므로 학생수가 증가하면 대학도서관의 장서수도 증가하였다. 1990년대 초 대학에 국가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제1주기 대학교육협회의의 대학종합평가인정제(1994-2000년)가 실시되면서 많은 대학이 도서관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면서 1993년에 대학도서관의 총 예산이 갑자기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사서수도 증가하였다, 1996년에도 예산이 다시 30%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도서관의 학생수나 학과 수에 기준을 두고 도서관을 운영할 때 보다는 도서관의 외부적인 요인인 국가보조금이나 대학종합평가가 도서관의 예산을 증가시키는 정보정책으로 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과거에는 대학도서관 정보정책이 학생수나 학과 수에 따라서 대학도서관 장서를 도서관에 투입시키는데 도서관의 운영목적을 세웠다 그러나 현재에는 도서관의 출력인 장서이용과 이용자 만족에 중점을 두고, 사회의 여러 도서관과 경쟁하는데도 중점을 두고 있는 정보정책을 세우고 있다. 또한 사서들이 압력단체를 형성하고 그들의 의견을 정보정책에 반영시키려는, 시스템과정에 정보정책의 중점을 두려고 노력중이다.

〈표 2〉 연대별 대학도서관의 직원수, 좌석수, 장서수, 예산*

년도	직원수(명)	좌석수(석)	장서수(권)	예산(천원)
1961	522	-	2,678,976	-
1962	740	-	3,072,616	-
1963	740	-	3,361,786	-
1964	759	-	3,634,154	42040
1965	838	-	3,951,379	51276
1966	863	-	4,177,160	176419
1967	963	-	4,382,060	178820
1968	991	-	4,693,353	239901
1969	1,047	-	5,000,848	436740
1970	1,076	-	5,158,702	315476
1971	1,212	-	5,625,895	439195
1972	1,278	-	6,325,409	868810
1973	1,307	-	6,531,555	1210218
1974	1,281	-	6,335,300	726273
1975	1,255	-	6,808,035	1445176
1976	1,328	-	7,202,131	1828259
1977	1,400	-	7,596,227	2211342
1978	1,515	-	8,377,524	4789932
1979	1,629	-	9,158,821	7368522
1980	1,733	-	10,092,041	8234453.5
1981	1,969	-	11,025,261	9100385
1982	2,132	-	12,874,169	11740252
1983	2,294	-	14,723,077	14380119
1984	2,457	-	16,571,985	17019988
1985	2,651	-	18,449,919	22004957.5
1986	2,844	-	20,327,853	26989927
1987	2,932	-	21,649,641	27641662
1988	3,013	-	23,805,343	29544804
1989	3,303	-	26,060,009	38606013
1990	3,282	-	27,468,776	41166958
1991	3,301	-	29,645,480	46549999
1992	3,450	265,085	32,413,198	52944478
1993	3,525	285,827	35,758,269	101475898
1994	3,579	288,177	37,152,952	102889384
1995	3,766	308,091	40,023,787	107106516
1996	3,883	331,491	47,860,971	169101031
1997	3,883	349,578	52,718,721	224933591
1998	3,967	366,052	57,950,055	571206291
1999	3,919	398,846	65,839,838	249369184
2000	3,802	408,828	68,665,087	174889476
2001	3,925	408,496	75,837,882	240,502,480

* 『한국도서관통계 2001』.

Ⅲ. 연구결과

정보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학도서관의 장서, 사서, 건물, 이용자에 관한 현 상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장서 (장서에 관하여 사서들과 면담한 결과)

(1) 과거의 도서관정보정책은 도서관의 입력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도서관시스템 출력에 초점을 두며 과정에도 초점을 두게 된다. 즉 도서관의 좋은 장서수를 계속 늘려야하고 이용도 많이 시켜야 하며 장서정책 등을 성문화하여야 한다.

(2) 대학종합평가의 평가기준이 도서관운영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종합평가는 한국사회에서 대학간의 경쟁과 대학간의 서열을 평가하는데 그쳤으며 국가의 지원금을 할애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학과별 평가를 받는 학과들에 대하여는 사서들이 임의로 더 많은 장서구입 예산을 할애하고 있었다.

(3) 대학설치기준령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나 대학본부에 도서관 사정을 알려주는데 통계가 필요하다.

(4) 대학도서관의 장서수는 관당 180,566권(대학도서관의 총장서수/대학수 : 75,837,882/420)으로 평균소장 장서수가 적다 <표1, 2>. 그리고 대학별로 장서수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대학간의 상호대차시스템을 개발하여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내에서는 지정도서제도나 과제도서제도를 활성화시켜야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KERIS와 같은 환경 속의 다양한 정보기관을 키워주고 이용하도록 한다.

(5) 계속 좋은 장서를 구입할 뿐 아니라 특성 있는 주제를 구입하여 분담수서를 하고자 하나 주제를 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하고 있는 자료도 모두 전산화하여 이용하여야 하므로 표준화의 개발이 필요하고 시급하다.

(6) 디지털자료를 구입하여야 하나 예산에 한계가 있고 디지털자료의 보존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디지털 자료를 이용하는 데는 저작권의 문제가 따른다.

2. 건물

건물은 자동화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거의 모든 대학도서관이 자동출입카드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영국의 모든 대학도서관은 자동출입카드를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출입하는

이용자를 자동으로 비디오 촬영하여 보관하므로써 도서관의 출입을 엄중히 하는 반면 일단 자격이 되면 누구에게나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다. 일본 대학은 97.9%가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그리고 화재 시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경보시스템은 물론 자동살수기를 활용하는 등 도서관 건물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3. 사서

(1) 사서들의 도서관 정보정책에 대한 관념이 확실하지 않았다. 도서관 정보정책에 관하여 사서들을 테스트한 결과 20% 이하의 사서들만이 도서관의 정책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도서관에서는 정보정책수립이 어렵고 거의 모든 도서관에 성문화된 정보정책이나 작업 진행도가 없었으나 대출에 관한 규정은 있었다.

(2) 전문화된 사서들이 필요하다. 전문사서는 도서관의 각종 정보정책을 성문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서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전문주제 개발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사서와 교수들이 한 팀을 구성하여 연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사서들도 교수만큼의 지식과 학벌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서들이 교수와 동등한 인정을 받고 있다. 한국의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이용자들은 국제적으로 경쟁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외국과 같은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이다.

(3) 대학도서관에는 1급 정사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전문사서의 현황<표 1>을 분석하면 각 대학도서관에 1급 정사서는 약 0.8명으로 전체적으로 대학도서관에 1급 정사서가 거의 1명도 없다고 볼 수 있다 (총1급정사서수 /대학도서관수: 361명/420=0.8명). 그러나 사립대학도서관에는 1급 정사서가 약 1.17 명으로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다(사립대학의 총 1급 정사서수/사립대학수: 210명/179=1.17)명이다. 전체적으로 대학도서관에 2급 정사서는 약 4.5명이다 (총 2급 정사서수 /총대학도서관수: 1920명/420=4.5명). 사립대학도서관의 2급 정사서는 약 7명이다 (총 1,2급 정사서수/사립대학 도서관수: 1,208 / 179 = 6.74 명). 1급과 2급의 정사서수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도서관협회에서는 협회에서 인정하는 프로그램에서 적어도 석사 학위를 받은 사서를 대학도서관의 사서로 인정하고 있다.

“The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has affirmed that the master’s degree from a program accredited by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is the appropriate terminal professional degree for academic librarians.” ([Http://www.ala.org/acrl/guides/acstatus.html](http://www.ala.org/acrl/guides/acstatus.html)).

4. 이용자

영국의 대학도서관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Self-service 하도록 유도하며 이용자를 도서관운영에 적극 활용한다. 교수들과 협조하여 지정도서나 과제도서를 반드시 비치하고, 희망도서를 통하여 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서를 한다. 학생들이 웹에서 사전과 백과사전은 물론 거의 모든 사실을 검색하므로써 참고봉사를 자동화시킨다. 그리고 자동대출반납기를 설치하여 대출과 반납도 이용자 각자가 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수서, 참고봉사, 정보검색, 대출, 반납을 손수(Self-service) 한다.

학생들에게 도서관의 모든 부분에서 Self-service 시키기 위해서는 사서들이 도서관 이용교육은 물론 기계 사용하는 방법과 각종의 안내서를 준비하고 있다.

위의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예산은 학생수나 교수수에 따라서 모체기관에서 받는 것은 물론이고 국고금이나 기타기관에서도 받고 있으며, 이것을 사서들이 의미대로 배분하는 자율적인 예산방법도 허용되고 있다.

IV. 결론과 제안

한국 대학도서관의 정보정책을 연구한 결과 과거에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학생수에 따라서 장서수를 증가하였다. 점차로 장서수가 많아지고 대학도서관이 평가를 받게 되면서 도서관내의 학생수에 정보정책의 초점을 두기 보다는 도서관 외부의 평가에 초점을 두고 대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이러한 평가기준이 대학도서관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대학도서관의 전문사서들이 대학도서관운영을 위한 목적과 정책을 세우고, 사서들의 행동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침을 세워서 자율적으로 대학도서관을 운영하게 된다.

위의 연구결과 미래의 대학도서관의 정보정책을 다음과 같이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1. 장서는 종이자료와 디지털자료가 함께 이용되게 하며, 장서수집의 목적을 교내 이용자뿐 아니라 교외의 이용자의 목적에도 맞춰야 한다. 종이자료와 관계되어 정보정책을 세우려면 좋은 장서를 계속 증가시키도록 하며, 장서의 분담수서, 표준화의 개발, 타도서관과의 상호대차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의 정보기관을 이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장서를 도서관시스템에 입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의 출력 그리고 시스템 과정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즉 장서수도 중요하지만 이용도가 중요하고 장서개발정책에 참여하여 수서정책을 성문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디지털장서를 효율적으로 구입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그 보존방법을 연구하고 저작권법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2. 대학도서관 사서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 도서관 환경에서는 사서들은 행동규범이나 입장을 성문화시키고 정보정책결정에 의견을 건의하고, 참가하며 강력한 압력단체를 형성하여 하여야 한다. 도서관내에서도 도서관의 목표를 규정하고 모든 정보정책과 작업과정을 성문화시킬 수 있는 자질을 키워야 한다. 또한 전문주제를 개발하고 1급 정사서자격증을 목표로 계속교육이 필요하다.

3. 건물관리는 기계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동화함으로써 사서들의 관리를 줄인다.

4. 이용자에게는 도서관 이용법을 교육시키고 안내문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수서, 검색, 대출의 모든 부분에서 최대한 Self-service를 하도록 한다.

5. 예산은 대학 외부로부터 지원받도록 노력하며, 도서관의 예산방법은 도서관 시스템의 입력요소인 장서, 사서, 좌석을 중심으로 하는 품목예산 방법보다는 시스템에 과정과 출력 그리고 환경에 초점을 두는 프로그램예산방법, 영기준예산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교감.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창립 30년을 맞이하여.”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30년사, 1972-2002』. 서울: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2002.
- 김두홍. “도서관정책.” 『도서관정보관리편람』.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4.
- 김정근.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5.
- 박준식.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그 미래의 전망.” 『한국사립 대학교 도서관협의회 30년사, 1972-2002』. 서울: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2002.
- 박해중. “사서가 바로서야 도서관이 선다.”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30년사, 1972-2002』.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2002.
- 백항기.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대학도서관 역할제고 방안.” 《도서관문화》 제33권 제3호 (2002. 3,4), pp. 7-9.
- 윤희윤. 『대학도서관경영론』. 대구: 태일사, 2002.
- 이만수. “정보사회에서의 국가 도서관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2권 제1호(2001. 3), pp. 201-221.
- 이병목. 『대학도서관기준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구미무역, 1985.
- 이봉순외 3인. 한국의 도서관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0.
- 이희수. “학교 및 대학도서관 진흥정책 방향.” 『2002 서울국제도서전‘전문인의날’ 세미나: 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정부의 도서관 진흥 정책을 중심으로』. 대한출판

문화협회·한국도서관협회, 2002. (미출판물).

전명숙. “상호대차제도의 이론과 응용.” 《도서관학》 제13집(1986), pp. 39-71. “정보기술과 도서관의 변화.” 《덕성여대논문집》 23(1994), pp. 75-21.

한국도서관 협회. 『한국도서관통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56-2001.

한국도서관협회 기준분과위원회.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1.

한국도서관협회.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1.

2002년도 국고지원사업 추진요령: <http://www.moe.go.kr/> (교육인적자원부→자료실→공개자료).

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 *Guidelines for Academic Status for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The final version approved by the ACRL Board at the 1990 Midwinter Meeting.

<http://www.ala.org/acrl/guides/acstatus.html>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policy statements. <http://www.ifla.org/II/libpol.html>

Stueart, Robert D. 『Library Management』. Engiewood : Libraries Unlimited, 1987.